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세종연간의 성균관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 은 임

세종연간의 성균관

오종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은임

인 준 서

박은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사위원.....(인)

심사위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유교 국가를 표방하고 건국한 조선은 태종 때 새 국가체제의 대강을 갖추게 이어, 세종 때 유교 문물제도의 세련된 내용을 갖추어 갔다. 儒生들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던 成均館은 이러한 변화를 담당해야 한 핵심 기구 중 하나였다. 세종연간에 종2품 이상의 고위 관원들을 성균관에 겸관으로 임명하여 성균관의 운영을 책임지운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본 논문은 세종연간에 어떤 이들이 어떤 직책에 임명되어 성균관에서 운영 책임을 맡았는지를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기(1418~1430)에 세종은 태종이 발탁한 사람들 중에서 성균관 운영 책임자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다. 2기(1431~1437)에는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재직기간이 다른 시기보다 짧았다. 그 이유는 세종이 예문관 등에 부족한 인력을 성균관에서 채웠기 때문이었다. 3기(1441~1450)에는 세종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을 久任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 중 다수가 권근과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조선 초 권근의 학술적 성과와 학술 진흥 정책은 조선 관학의 교육 제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다수가 권근과 인적 관계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선발에 권근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편 여러 연구자가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교육적인 면모를 강조해왔으나, 이 점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집현전이나 예문관의 관직과 같이 학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의정부·육조·승정원과 같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기관의 관직도

역임하였다. 이는 이들이 학술적인 성향에 치우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정적인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들은 성균관 운영을 담당한 이후 학술기관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의 주요 관직에도 두루 임명될 수 있었다.

요컨대 세종연간 성균관에서는 국왕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정 속에서 권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룬 이들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학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 능력 역시 갖춘 인물들이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직에도 임명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로부터 성균관 자체가 단순한 교육기구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조선 초 성균관의 정비 과정	
1. 한성으로의 이전과 정비	4
2. 관직체계의 정착	8
III.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	13
IV.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성격	
1. 권근과의 네트워크	23
2. 성균관 이외의 관직 경력	28
V.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유생들이 관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과 시험을 준비하는 국가 교육 기관이었다. 또한 성균관에서는 이미 조선 건국 전부터 많은 성리학자들이 양성되고 있었고, 이는 조선 건국 후에도 지속되었다.¹⁾ 새로 건국된 조선은 유교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균관이 담당하여야 할 몫도 작지 않았다.

성균관이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정비가 요구되었다. 성리학적 사회관습을 정착시키는 데에 문묘의례는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성균관에는 孔子를 모시고 祭享하는 공간인 대성전을 위시하여 강학공간인 명륜당 등이 갖추어져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훌륭한 인재들을 갖추는 일이었다.

이 논문은 처음에 세종연간에 이르면 어떤 인물들이 성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는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위에 착수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조사한 결과 大司成 이상에 해당하는 성균관의 고위 관직자들에 대한 기록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성균관대사성이상의 고위 관직자들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 성균관과 관련한 연구로는 먼저 이성무의 조선 초기 성균관을 개괄한 성과를 시작으로 조선 초기 성균관의 정비과정을 다룬 여러 논문들이 제출되었다.²⁾ 이 뒤로 성균관에 대한 연구는 교육제도와 기능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면서 16세기의 관학 침체 양상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³⁾ 조선

1) 李成茂, 「鮮初의 成均館研究」, 『역사학보』35·36, 역사학회, 1967, 220쪽.

2) 李成茂, 위의 「鮮初의 成均館研究」

申奭鎬, 「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 『大東文化研究』6·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69.

徐信錫, 「15世紀 成均館의 機能研究」, 『韓國學論集』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전기 성균관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균관의 직제와 관련하여 성균관대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⁴⁾ 성균관 유생들의 문화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최근에는 의례와 관련하여 성균관 대사례를 다룬 성과,⁶⁾ 그리고 성균관대사성과 관련하여 전력과 출신배경 등을 분석한 성과가 제출된 바 있다.⁷⁾

본 논문에서 논의할 주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균관대사성을 다룬 논문 4편 중 피정만의 논문은 처음으로 성균관대사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괄적인 소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정낙찬의 연구는 앞의 연구보다 대사성의 자격, 임명, 직무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총론적이며 교육제도 측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덕희의 논문들은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조선시대를 통틀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기별 결과 도출에 급급하여, 왜 그러하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부족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사성 이상의 성균관 관직자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조선 초기 성균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
- 3) 申千湜, 「朝鮮初期 成均館운영과 教育改革에 관한 研究」, 『關東史學』3, 관동사학회, 1988.
 申千湜, 「朝鮮初期 成均館의 시설과 教育職官에 대한 검토」, 『明知史論』8, 명지사학회, 1997.
 皮貞晚, 「朝鮮時代 成均館의 教育制度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申解淳, 「16세기 成均館教育의 沈滯原因에 대한 考察」, 『한국사연구』106, 한국사연구회, 1999.
 申解淳, 「中宗~明宗朝의 館學教育振興策」, 『사학연구』58-59, 한국사학회, 1999.
- 4) 皮貞晚, 「朝鮮時代 成均館大司成考」, 『教育史教育哲學』창간호, 한국교육철학회, 1977.
 丁洛贊, 「朝鮮前期 成均館大司成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5) 李義權, 「朝鮮前期의 空館研究」, 『사학연구』28, 한국사학회, 1978.
 張在天, 「朝鮮前期 成均館 教育과 儒生文化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신항수, 「성균관 유생들의 성리학적 이상과 현실참여」, 『내일을 여는 역사』25,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 6) 박종배, 「조선시대 成均館 大射禮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13, 교육사학회, 2003.
- 7) 정덕희,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성의 전력(前歷) 분석」, 『한국교육사학』29, 2007.
 정덕희, 「조선시대 성균관대사성의 출신배경 실태」,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보 2008.

한다. 시기를 세종연간으로 제한한 이유는 세종연간 동안 처음은 고려 말의 유학자들이 생존하였을 것이나, 그 말엽에는 그들이 거의 다 사망한 상태여서 조선 건국 후 새로 관직에 진출한 이들이 성균관 운영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연간의 성균관은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과도기였다. 세종은 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과거 정책과 학교 정책들을 제정하고 여러 서적들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성균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주목하였다.

세종연간에 성균관에서 고위 관직을 맡은 인물들 곧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이에 앞서 II장에서는 조선 초기 성균관이 정비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III장에서 세종연간 성균관에 누가 어떤 운영 책임 직책을 맡았는지 시기별로 정리하여, 성균관 운영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권근과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또 그들이 성균관 이외에 어떠한 관직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권근(權近, 1352~1409)⁸⁾은 麗末鮮初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이색에게서 성리학을 배웠으며 태조·태종연간에 학문 진흥에 힘썼다. 그리고 그는 『入學圖說』, 『五經淺見錄』등을 저술하였다. 성리학 해설서는 경연에서는 물론이고 성균관과 같은 관학에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색과의 네트워크 또한 기본적인 고찰 대상이 될 것이다.

8) 권근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여말선초 유학자들의 불교관에 대해서 살펴본 이정주의 박사학위논문(이정주, 「麗末鮮初 儒學者의 佛敎觀-鄭道傳과 權近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을 연구하면서 이색계열과 정도전계열을 살펴본 도현철의 저서(도현철,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일조각, 1999.), 권근의 경학사상을 연구한 강문식의 저서(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가 있다. 그리고 권근을 15~16세기 문묘중사와 도통론에 관련하여 분석한 지두환(池斗煥, 「朝鮮前期 文廟從祀 論議-鄭夢周·權近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9, 효원사학회, 1985.), 김용곤(金鎔坤, 「朝鮮前期 道學政治思想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김영두(金泳斗, 「朝鮮 前期 道統論의 展開와 文廟從祀」, 西江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의 연구가 있다.

II. 조선 초 성균관의 정비 과정

1. 한성으로의 이전과 정비

조선왕조의 성균관은 한성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인 개성에 위치한 성균관과 한성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한성에 위치한 성균관으로 구분된다. 태조 즉위 후 성균관은 고려 성균관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성에 있던 성균관은 1394년(태조 3) 2월에 화재로 東廊이 소실되어⁹⁾ 태조 연간 이후에야 복구되었다.

1394년(태조 3) 9월 태조는 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여 궁궐을 비롯한 건물 공사에 착수하였다.¹⁰⁾ 그리고 그해 10월 도읍의 면모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어 1395년(태조 4) 12월에는 성균관과 校書館에 명하여 文廟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¹¹⁾ 성균관과 문묘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397년(태조 6)부터였다. 1397년(태조 6) 2월에 都評議使司에 명하여 문묘의 터를 살펴보게 하고,¹²⁾ 6월에는 환관 김사행(金師幸, ? ~ 1398)을 文廟造成提調로 삼았다.¹³⁾ 그리고 10월에는 文廟役所에 행차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관원과 군인에게 술을 하사하였다.¹⁴⁾ 1398년(태조 7) 7월 한성의 동부 崇教坊에 문묘가 완공되었다.¹⁵⁾

1410년(태종 10)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작성한 「문묘비문」의 내용을 『태종실록』에서 살펴보면 당시 성균관과 문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9) 『태조실록』 권5, 3년 2월 6일 병진.
10) 『태조실록』 권6, 3년 9월 1일 무술.
11)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7일 병신.
12) 『태조실록』 권11, 6년 2월 2일 을유.
13) 『태조실록』 권11, 6년 6월 2일 임오.
14) 『태조실록』 권12, 6년 10월 7일 을유.
15) 『태학지』 권1 상편, 廟宇.

“갑술년(1394년)에 태조께서 이미 도읍을 세우고 宗社·朝市·城郭·宮室의 제도가 모두 적당하게 되매, 곧 廟學을 영건하기를 도모하여 도성 동북 모퉁이에 땅을 정하였는데, 산이 그치고 땅이 넓고 물이 둘러 흘러, 그 위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驪興府院君 閔霽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였는데, 工人을 모으고 재목을 다듬어 정축년(1397년) 3월에 시작하여 무인년(1398년) 7월에 일을 끝냈다. 聖哲은 높은 집이고, 從祀한 이는 옆의 집이며, 학교는 사당 뒤에 있고, 가운데는 明倫堂이며, 좌우에는 夾室이 있고, 두 협실 남쪽에는 긴 행랑으로 둘러싸고, 左夾의 동쪽에는 廳과 廊이 있어, 師生의 위치와 正祿의 居處가 완비되지 않음이 없고, 규모가 宏大하고 집을 지은 것이 견고하여, 무릇 집을 지은 것의 크고 작은 것을 間數로 계산하면 96칸이었다. 밭을 두어 粢盛에 이바지하고 生徒에게 식량을 주게 하며, 부역을 면제한 사람으로 灑掃에 응하게 하고 使令을 넉넉하게 하였으니, 廟學의 일이 구비하였다 할 수 있는데, 경진년(1400년) 2월에 불에 탔다……”¹⁶⁾

정종은 즉위 후 개성으로 다시 환도하였고, 그 사이 1400년(정종 2) 2월 한성에 있는 문묘 대성전이 불탔다.¹⁷⁾ 태종이 한성으로 다시 환도하는 1405년(태종 5) 10월까지 약 6년간은 개성에 있는 성균관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 까닭에 태종은 개성 성균관의 복구에 힘을 썼다. 그는 즉위하면서 개성 성균관 역사를 일으키고 1401년(태종 1) 8월 성균관 건축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¹⁸⁾ 아울러 며칠 뒤에는 의정부 관리들이 성균관에 모여 인부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¹⁹⁾ 아마도 이때 개성 성균관 복구 공사가 완공되었을 것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04년(태종 4)까지 使臣의

16) 『태종실록』권20, 10년 9월 29일 기사. 변계량이 쓴 「문묘비문」은 『春亭先生文集』卷之十二, 碑誌에 「有明朝鮮國學新廟碑銘」으로도 실려 있는데 태종 10년 9월 29일에 실린 것과 내용은 같다.

17) 『정종실록』권3, 2년 2월 2일 정유.

18) 『태종실록』권2, 1년 8월 8일 갑자.

19) 『태종실록』권2, 1년 8월 17일 계유.

문묘 배알, 元子の 入學儀²⁰⁾ 등 성균관에서 행하는 의례는 개성 성균관에서 이루어졌다.

1405년(태종 5) 10월 한성으로 다시 환도하고 나서부터는 한성의 성균관이 다시 조선의 성균관이 되었다. 태종은 환도 다음 해인 1406년(태종 6) 3월에 『文獻通考』를 상고하여 성균관 바깥마당의 넓이를 정하였고,²¹⁾ 같은 해 11월 성균관에 나아가 친히 문선왕에 제사를 지냈다.²²⁾ 아울러 1407년(태종 7) 2월 불탔었던 문묘를 새로 짓게 하였고,²³⁾ 3월에 성균관 문묘가 완공되었다.²⁴⁾ 다만 이 문묘의 중건 시기는 『태종실록』권20, 10년 9월 29일 계사의 기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중건 시기는 앞서의 기사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날의 기사에는 변계량이 쓴 「문묘비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을유년(1405년)에 환도하여 先聖先師께 친히 奠을 드리었고, 3년 되는 정해년(1407년) 정월에 사당의 옛터에 신축할 것을 명하였다. 星山君 臣 李稷과 中軍同知摠制 臣 朴子靑이 역사를 감독하여,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독려해 살피고,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손수 지시하여, 工師가 부지런히 일하여 4개월이 지나 사당이 이루어졌는데, 높고 그윽하고 단정하고 큰 것이 옛날에 비하여 더함이 있었다… …”²⁵⁾

라고 하여 정월에 짓기를 명령하여 닷 달 뒤에 완공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어느 기록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문이 당시에 쓰였다는 점을 감안

20) 『태종실록』권5, 3년 4월 8일 갑인.
21) 『태종실록』권11, 6년 3월 14일 갑진.
22) 『태종실록』권12, 6년 11월 13일 기사.
23) 『태종실록』권13, 7년 2월 14일 기해.
24) 『태종실록』권13, 7년 3월 21일 을해.
25) 『태종실록』권20, 10년 9월 29일 계사.

하면 후자의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²⁶⁾

문묘가 지어진 이후에도 성균관의 시설 확장은 계속 되었다. 1413년(태종 13) 9월 예조판서 황희(黃喜, 1363~1452)의 건의에 따라 성균관을 수리하고 식당을 따로 짓기로 하였다.²⁷⁾ 또한 齋의 한 모퉁이에 온돌을 지어서 병 걸린 자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기도 하였다.²⁸⁾

세종연간에 들어서도 성균관 시설의 증축은 계속되었다. 1419년(세종 1)에는 노비 100명을 성균관에 하사하였다.²⁹⁾ 1425년(세종 7)에는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하여 工曹로 하여금 동재·서재 각 5칸을 수리하여 온돌을 놓게 하고, 繕工監으로 하여금 浴湯과 板橙 80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長興庫로 하여금 長官廳에 鋪陳을 깔게 하였다.³⁰⁾ 1427년(세종 9)에는 소나무를 성균관 主山에 심었다.³¹⁾ 1433년(세종 15)엔 禮曹에서 成均司藝 김반(金泮, ?~?)이 올렸던 글을 의논하여 문묘의 동무·서무를 각 4칸씩 증축하기로 하고, 문묘의 악기를 軒架의 架子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 넣어두기로 하였으며, 泮水에 대하여서는 문묘의 세 방향을 바깥담으로 두르고 남쪽에는 櫺星門을 짓고 동쪽에 문 하나를 짓기로 하였고, 犧牲을 두는 공간을 지었다.³²⁾ 그리고 1440년(세종 22)에 額字를 설치하였는데 개성부의 성균관 예에 따라 聖殿의 액자는 ‘大成至聖之殿’이라 칭하여 黃金으로 썼고, 明倫堂은 그대로 명륜당으로 칭하여 청색으로 썼다.³³⁾ 1443년(세종 25)에는 문묘비에 비각을 세웠다.

이렇게 지어진 문묘와 성균관은 성간(成侃, 1427~1456)이 지은 명륜당기에

26) 申千湜, 「朝鮮前期 成均館의 시설과 敎育職官에 대한 검토」, 『명지사론』8, 명지사학회, 1997, 10쪽.

27) 『태종실록』권26, 13년 9월 3일 기묘.

28) 『태종실록』권33, 17년 윤5월 14일 기사.

29) 『세종실록』권5, 1년 8월 8일 경진.

30) 『세종실록』권29, 7년 7월 19일 병술.

31) 『세종실록』권35, 9년 2월 2일.

32) 『세종실록』권61, 15년 윤8월 24일 갑술.

33) 『세종실록』권91, 22년 10월 30일 기해.

도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시던 某年에 서울 동북편에 국학을 설치하시니, 경영하고 설계한 규모와 제도가 모두 알맞게 되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략을 살펴보면, 남쪽에 廟가 있고, 그 좌우에 廡가 있다. 묘에는 주로 先聖을 모셨고, 무에는 주로 先師를 모셨는데, 나라의 예전 법도이다. 동에는 正錄所가 있고, 그 남쪽에는 廚房이 있고, 그 남쪽에는 식당이 있다. 묘 북쪽 양편 옆으로는 긴 행랑을 늘어놓았고, 행랑 북쪽에는 터를 높여서 중간에 큰 마루를 내고 양편에 夾室을 꾸며서 스승과 학생들의 講學하는 곳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明倫堂이다… …”³⁴⁾

세종 이후 성균관의 보조 시설 확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51년(문종 1)에 건물을 보수하고, 泮水를 설치하며, 악기 보관을 위한 건물을 마련하였다.³⁵⁾ 1452년(문종 2)에는 문묘 앞의 대로 폭이 확장되었다.³⁶⁾ 그리고 1472년(성종 3)에 典祀廳이, 1473년(성종 4)에 享官廳이, 1475년(성종 6)에 尊經閣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정비가 되었던 성균관은 연산군 재위 후반에 학교로서의 의미가 훼손되었고, 중종 때 다시 전반적인 수리하게 되었다.

2. 관직체계의 정착

한성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등 건물이 조성되는 과정과는 별개로 성균관의 직제는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에 제정되었다.³⁷⁾ 이

34) 『신증동국여지승람』제2권, 경도 하, 성균관.

35) 『문종실록』권8, 1년 7월 28일 갑자.

36) 『문종실록』권12, 2년 3월 29일 임술.

는 고려 말의 성균관 직제를 일부 변경한 정도였다. 게다가 국초에 아직 질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태조는 1398년(태조 7) 4월 정도전과 권근을 성균관 提調로 임명하여 4품 이하의 儒士로서 현직자와 전직자와 三館(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유생을 모아 經史를 강습하게 한 적도 있었다.³⁸⁾

성균관 직제는 1401년(태종 1년) 7월 다시 개편되었다. 하윤(河崙, 1347~1416)이 관직개편안을 올려 성균관 관직 종3품 祭酒를 司成으로 고치고, 정4품 樂正을 司藝로 고치고, 정5품 典簿를 注簿로 고쳐, 강등시켜 정6품으로 하였다.³⁹⁾ 이와 같은 관직명칭 개편은 고려 말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치면서 교육내용을 경학위주로 개편했던 것을 계승하는 것이었다.⁴⁰⁾

세종연간의 성균관 직제 개편은 四學과 宗學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敎官을 성균관의 교관으로 하여금 겸임시키며 초래된 교관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었다. 宗學은 1428년(세종 10)에 처음 세워졌고,⁴¹⁾ 1430년(세종 12)에 예조에서 건의하여 종학의 관원들을 모두 성균관의 관원으로써 겸임하게 하고, 성균관 司成·直講·注簿를 다 1인씩 더 설치하여 관품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였다.⁴²⁾ 그리고 1437년(세종 19)에는 의정부에서 성균관 司藝 이하와 注簿 이상을 품계마다 각 2인씩 더 설치하여 四部學堂의 교관으로 나누어 맡고서 가르치도록 아뢰었다.⁴³⁾ 더 나아가 1446년(세종 28)에는 의정부에서 아뢰어 성균관에 成均直講 3인·注簿 4인·博士 1인·進德博士 1인·學正 1인·學錄 1인을 더 설치하고, 전에 설치된 직강 1인과 參外訓導 4인⁴⁴⁾까지

37) 『태조실록』권1, 1년 7월 28일 정미.

38) 『태조실록』권13, 7년 4월 20일 병신.

39) 『태종실록』권2, 1년 7월 13일 경자.

40) 신척식, 앞의 논문, 18쪽.

41) 『세종실록』권41, 10년 7월 12일 임술.

42) 『세종실록』권47, 12년 3월 6일 병오.

43) 『세종실록』권78, 19년 9월 21일 무신.

44) 이 參外訓導 4인은 1438년(세종 20) 8월 3일 을묘에 의정부에서 아뢰어 사부학당의 훈도관을 각기 하나씩 증원하되, 성균관 학관에서 이를 임명해 정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합하여 총 16인을 四部學堂 각 教授官 2인, 訓導官 2인으로 두게 하도록 하였다.⁴⁵⁾

이로써 세종연간 성균관 관직 정원은 1430년(세종 12)에 3명, 1437년(세종 19)에 6명, 1446년(세종 28)에 11명이 늘어 총 42명이 되었다. 성균관 교관을 대폭 늘여 이들로 하여금 종학과 사부학당 교육에 전담토록 함으로써 교육체제를 더욱 정비한 것이었다.

<표 1> 조선 초 성균관 직제 표⁴⁶⁾

품계	고려사 백관지 성균관 ⁴⁷⁾		1392년(태조 1) 7월		1401년(태종 1) 7월		1446년(세종 28) 3월	
	관직 명칭	정원	관직 명칭	정원	관직 명칭	정원	관직 명칭	정원
정3	大司成	1	大司成	1	大司成	1	大司成	1
중3	司成	1	祭酒	1	司成	1	司成	2
정4			樂正	2	司藝	2	司藝	4
중4	司藝	1						
정5			直講	1	直講	1	直講	7
중5	直講	1	典簿	1				
정6					注簿	1	注簿	8
정7	成均博士	2	博士	2	博士	2	博士	3
중7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諄諭博士	2
정8			進德博士	2	進德博士	2	進德博士	3
중8	進德博士	2						
정9	學正	2	學正	2	學正	2	學正	3
	學錄	2	學錄	2	學錄	2	學錄	3
중9	直學	2	直學	2	直學	2	直學	2
	學諭	4	學諭	4	學諭	4	學諭	4

이후 성균관 직제는 세조연간에 한 번 더 개편이 되고 『經國大典』에 정리된다.

직제 상 성균관 본직으로 가장 높은 품을 가진 성균관대사성은 세조 때 직제를 개편하면서 堂上官이 된다.⁴⁸⁾ 그 전의 성균관대사성은 1398년(태조

45) 『세종실록』권111, 28년 3월 8일 을해.

46) <표 1>은 丁洛贊, 「朝鮮前期 成均館大司成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8 쪽 <表II-1>을 수정 보완하여 만들었다.

47) 『고려사』권76, 志 30, 百官 1, 成均館.

7) 10월의 義興三軍府에서 무관의 班次를 정하길 청하는 기사를 살펴보면,

“문관의 通政大夫는 곧 무관의 折衝將軍입니다. 승지 다섯과 대사성은 모두 花銀을 띠로 띠었는데도 다만 절충장군만이 홀로 光銀을 띠로 띠었으니, 원하옵건대 문관 통정대부의 例에 의거하게 할 것입니다.”⁴⁹⁾

이라 하여 다섯 승지와 같이 정3품 통정대부의 품계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성균관에는 다른 관직을 맡은 이가 겸직하여 성균관의 관원이 되는 兼官制가 있었다. 이 겸관제를 통해 성균관에는 정3품 대사성보다 더 높은 관직이 있었다. 태조연간에는 태조가 정도전과 권근을 성균관 제조로 삼아 유생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태종연간에는 이 겸관제가 더 이용되었다. 1403년(태종 3) 3월 司諫院에서 올린 疏를 윤허하여 이색의 학문을 이은 參贊兼大司成 권근으로 하여금 軍國에 대한 중요한 일의 會議를 제외하고는 날마다 성균관에 나아가 근무하게 하였다.⁵⁰⁾ 1415년(태종 12) 5월에는 예조에서 국학에 대한 事宜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겸대사성은 한때 유생의 표준이 되니 마땅히 날마다 성균관에 근무하여 학업을 연습하고 학습을 격려하기를 열심히 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⁵¹⁾ 이에 태종은 겸대사성에게 명하여 날마다 성균관에 근무하면서 講學을 열심히 하게 하였다.⁵²⁾ 태종연간의 겸대사성들은 성균관에 근무하면서 강학에 힘쓰는 것이 주 업무였고, 유림의 사표로 유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또 행직으로 성균관 대사성을 맡은 경우가 있었다. 1418년(태종 18) 4월에 태종은 조용을 藝文館大提學世子左賓客行成均大司成으로 임명하였다.⁵³⁾ 그

48) 『세조실록』권38, 12년 1월 15일 무오.

49) 『태조실록』권15, 7년 10월 29일 신미.

50) 『태종실록』권5, 3년 3월 3일 경진.

51) 『태종실록』권23, 12년 5월 11일 갑오.

52) 『태종실록』권24, 12년 8월 24일 병자.

53) 『태종실록』권35, 18년 4월 17일 정유.

리고 태종이 세자에게 선위하려고 하자 행성균대사성으로서 조용은 석전제 때문에 성균관에서 致齋하다가 학관·학생들과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다.⁵⁴⁾ 본직은 예문관대제학이지만 성균관대사성을 겸하게 된 조용은 석전제같이 성균관의 중요 업무에 제관을 맡아 치재를 하고 있었고, 왕의 중대한 결정에 불가함을 상소로 피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겸대사성, 행대사성은 성균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세종연간에도 위의 직책들이 마찬가지로 이용되었다. 세종연간에는 겸대사성·겸사성·지성균관사 등의 겸직과 행대사성과 같은 행직 그리고 가대사성과 같은 임시직이 있었다. 1426년(세종 8) 11월에는 성균관 參外官으로 하여금 養賢庫의 직을 겸하도록 할 때에 겸대사성과 겸사성에게 포폄을 맡겼고,⁵⁵⁾ 1432년(세종 14) 2월에는 겸대사성, 겸사성 등으로 하여금 자주 성균관에 가서 講論하고 勸課하게 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게 하였다.⁵⁶⁾ 1435년(세종 17) 9월에는 지성균관사인 허조가 과거 응시 자격, 경서 강설, 사재 설치 등 성균관과 관련한 여러 일들을 상소·상언 하는 기록들이 있다.⁵⁷⁾ 세종연간에도 중2품 이상의 당상관들로 하여금 성균관에 겸관으로 임명하여 근무평가와 강학을 담당하게 하였고, 필요한 논의들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균관에서 정3품 이상의 관직을 맡았던 자들을 모두 성균관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에 대해 고찰할 때에는 정3품 대사성뿐만 아니라 그 위의 고위 겸관도 함께 살펴보아야한다. III 장에서는 세종연간에 성균관의 정3품 이상 관직에 임명받았던 이들을 살펴보고 당시 성균관 운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용어의 통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성균관 운영 책임자라고 쓰겠다.

54) 『태종실록』권36, 18년 8월 9일 병술.

55) 『세종실록』권34, 8년 11월 12일 신축.

56) 『세종실록』권55, 14년 2월 6일 을미.

57) 『세종실록』권69, 17년 9월 27일 을미; 권69, 17년 9월 30일 무술; 권75, 18년 10월 8일 경오.

Ⅲ.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

이 장에서는 세종연간에 어떤 이들이 어떤 직책에 임명되어 성균관에서 운영 책임을 맡았는지를 시기별로 확인하여 당시 성균관 운영의 특징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더 나아가 세종연간 성균관의 운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종연간 성균관 정3품 이상의 운영 책임자들은 『세종실록』에서 찾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7명이다. 이 인물들이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 전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사실상 이들이 전부라 할 수 있다.

<표 2> 세종연간 성균관의 운영 책임 관직과 맡은 인물 표

시기	직함	재직년	성명	본관	입신과정
1기	행대사성(行大司成)	세종즉위	조용 (趙庸, ?~1424)	眞寶	1374년(공민왕 23) 문과 급제
	예문관제학 겸성균사성 (藝文館提學兼成均司成)	세종즉위	권우 (權遇, 1363~1419)	安東	1385년(우왕 11) 문과 급제
	인녕부윤 행성균대사성 (仁寧府尹行成均大司成),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행대사성(行大司成)	세종 1, 2	유백순 (柳伯淳, ?~1420)	瑞山	1376년(우왕 2) 문과 급제
	겸성균사성(兼成均司成)	세종 3	탁신 (卓愼, 1367~1426)	光州	1389년(공양왕 1) 문과 급제
	대사성(大司成), 인수부윤 행성균대사성 (仁壽府尹行成均大司成), 행성균대사성 (行成均大司成)	세종 6, 7, 8, 10, 11, 12	황현 (黃鉉, 1372~?)	平海	1393년(태조 2) 문과 급제
	대사성(大司成)	세종 10	박서생 (朴瑞生, ?~?)	比安	1401년(태종 1) 문과 급제
2기	대사성(大司成)	세종 13,	금유 (琴柔, ?~?)	奉化	1396년(태조 5) 문과 급제
	겸사성(兼司成) 겸성균대사성	24 세종 14,	이맹균	韓山	1385년(우왕 11)

	(兼成均大司成), 의정부참찬 겸성군대사성 (議政府參贊兼成均大司成)	15	(李孟昀, 1371~1440)		문과 급제
	성군대사성(成均大司成)	세종 15, 16	권채 (權採, 1399~1438)	安東	1417년(태종 17) 문과 급제
	중추원사 겸성군대사성 (中樞院使兼成均大司成)	세종 15	윤희 (尹淮, 1380~1436)	茂松	1401년(태종 1) 문과 급제
	가대사성(假大司成) 겸성군대사성(兼成均大司成)	세종 17, 30	정인지 (鄭麟趾, 1396~1478)	河東	1414년(태종 14) 문과 급제
	대사성(大司成)	세종 17	유효통 (兪孝通, ?~?)	杞溪	1408년(태종 8) 문과 급제
	지성군관사(知成均館事)	세종 17, 18, 19	허조 (許稠, 1369~1439)	河陽	1390년(공양왕 2) 문과 급제
3기	겸성군대사성 (兼成均大司成)	세종 23	권도, 권제 (權蹈, 權躋, 1387~1445)	安東	1414년(태종 14) 문과 급제
	겸성군사성(兼成均司成), 행성군사성(行成均司成), 첨지중추원사 겸성군사성 (僉知中樞院事兼成均司成), 경창부윤 겸성군사성 (慶昌府尹兼成均司成), 예문제학 겸성군사성 (藝文提學兼成均司成), 겸사성(兼司成), 성군관겸사성(成均館兼司成), 가대사성 제학(假大司成提學)	세종 23, 24, 27, 28, 29, 30, 32	윤상 (尹祥, 1373~1455)	醴泉	1396년(태조 5) 문과 급제
	성군대사성(成均大司成), 첨지중추원사 겸사성(僉知中樞院事兼司成), 대사성(大司成), 행성군대사성 (行成均大司成)	세종 23, 25, 27, 29, 30	김반 (金泮, ?~?)	文化	1399년(정종 1) 문과 급제
	판중추원사 지성군관사 (判中樞院事知成均館事)	세종 26	조말생 (趙末生, 1370~1447)	楊州	1401년(태종 1) 문과 급제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성군관 운영 책임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모두 문

과에 급제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성균관이 조정에 나아갈 관리를 양성하는 곳이며 그 관리는 과거를 통해 뽑힌다는 점을 볼 때 스승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명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자면 조선 이전 왕조인 고려에서 문과 급제한 부류와 조선에서 문과 급제한 부류가 있겠다. 고려 말에 문과 급제한 인물들로는 조용, 권우, 유백순, 탁신, 이맹균, 허조가 있다. 이들은 고려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태조와 태종연간에도 관직생활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조용과 권우, 유백순은 태종연간에 이미 성균관대사성을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고위 관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에서 행적으로 관직을 맡거나 겸직을 맡았으며, 세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 곧 죽어서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자들의 성격으로 함께 규명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그러나 이들에서부터 보이는 공통점은 성균관 대사성과 성균관 겸직을 맡기 전에 예문관과 같이 문장을 만드는 데 뛰어난 능력을 필요로 한 館에서 근무를 했다는 점이다. 이맹균과 허조는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세종 재위 중반까지 살아있었기에 세종연간의 관직 경험이 많고, 세종 재위 중반기에 성균관의 운영 책임자를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과거에 급제한 부류가 있다. 6명 이외 나머지 11명인데 세종연간 성균관 고위직을 맡았던 이들의 65%, 약 2/3가 조선에서 과거를 보고 급제한 이들이다. 이와 같이 세종연간의 성균관은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을 보았을 때 고려에서 급제한 자와 조선에서 급제한 자가 함께한 마지막 시기였다.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시기별로 1기, 2기, 3기로 구분한다면 대략 1418년(세종 즉위)부터 1430년(세종 12년)까지를 1기, 1431년(세종 13)부터 1437년(세종 19)까지를 2기, 1441년(세종 23)부터 1450년(세종 32)까지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438년(세종 20)부터 1440년(세종 22)까지

약 3년간은 『세종실록』에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기록이 없어 누가 성균관을 운영하였는지 알 수 없다.

우선 1기에 성균관 운영 책임자를 맡았던 이로는 조용, 권우, 유백순, 탁신, 황현, 박서생이 있다. 이 시기는 세종이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고 국정의 주도권을 잡는 시기였다. 태종은 세종에게 선위하고 나서부터 1422년(세종 4) 5월에 사망하기까지 상왕(1418~1421)·태상왕(1421~1422)으로 있었다. 선위한 태종이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통치의 중심이 태종과 세종으로 분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도 二元的으로 운영되었다.⁵⁸⁾ 특히 태종은 軍國重事を 관여하겠다고 하고 兵曹로 상왕전의 出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⁵⁹⁾ 그리고 태종은 1420년(세종 2)을 기점으로 외방행행을 통해 국정이양 추진에 있었던 듯하다. 태종은 行幸을 통한 外方滯留가 빈번해지는데, 태종의 행행에는 병조를 비롯하여 좌·우의정이 자주 동반되었다.⁶⁰⁾ 이는 결국 軍國重事가 점차 세종에게 이관되는 과정에서 대신들은 태종과 함께 국정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⁶¹⁾ 세종은 태종이 죽기 전까지 단계를 밟아가며 처리 영역을 넓혀갔다.

태종이 사망하고 세종은 1426년(세종 8)에 일어난 ‘金道練 賄賂事件’을 계기로 국왕 중심으로 정계구도를 재편하였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다.⁶²⁾ 이 사건을 계기로 功臣출신의 의정부 執政勢力이 퇴출되면서 의정부는 황희·맹사성 등 非공신계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었다.⁶³⁾ 태

58) 劉載梨, 『世宗의 王權確立過政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38쪽.

59) 『세종실록』권1, 즉위년 8월 30일 정미 기사에 병조판서·참판·참의의 모든 兵事 출납은 代言司의 예에 의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로써 병조는 상왕전의 직속기구로 명시되었고, 양전의 출납은 ‘주상전-승정원’, ‘상왕전-병조’로 체계화되었다.(劉載梨, 위의 논문 29쪽.)

60) 『세종실록』권7, 2년 윤1월 17일 병술.

61) 劉載梨, 위의 논문, 33~34쪽.

62) ‘金道練 賄賂事件’은 金道練이 노비를 쟁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7명의 전직, 현직 신료들에게 많은 노비를 증여한 뇌물수수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도태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종대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劉載梨, 위의 논문, 109쪽.)

63) 劉載梨, 위의 논문, 142쪽.

종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대거 주요 관직에서 밀려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

한편 태종은 죽기 전에 양녕대군과 관련하여 좌천되었던 황희(黃喜, 1363~1452)를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였다.⁶⁴⁾ 그 외에 이직(李穰, 1362~1431)과 같이 자신이 재위하였을 때 축출했던 인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종연간에 주요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점은 세종이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와 관련된 임용 가능한 인재 그룹이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할 때 설정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시기 성균관의 운영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기 중에서도 1418년(세종 즉위)부터 1421년(세종 3)까지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태종연간에 성균관대사성을 맡았던 적이 있던 이들이 맡았다. 이 시기는 세종이 새로 발탁한 인물들이 아닌, 이미 태종이 발탁한 인물들 가운데서 세종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로 선택하여 임명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기 중에서 1424년(세종 6)부터 1430년(세종 12)까지 성균관의 운영을 맡았던 인물은 황현이었다. 언제부터 황현이 성균관대사성을 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24년(세종 6)에 대사성이었던 기록⁶⁵⁾으로 시작하여 6년간은 황현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현이 성균관대사성에 오래 임명되었던 이유는 1430년(세종 12) 8월 詳定所에서 세종에게 아뢰었던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다. 贊成 허조가 “講經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선비들이 모두 詞章만을 힘써 결국 教授할만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을 들어 말하더라도 대사성에 임명할 경우에 사람을 얻을 수 없어서 황현을 행대사성에 임명하였으며,……”라고 말했다.⁶⁶⁾ 대사성에 임명되려면 경

64) 『세종실록』권4, 1년 5월 9일 계축에 태종은 황희의 죄가 가볍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세종실록』권15, 4년 2월 12일 기해에는 황희를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세종실록』권16, 4년 4월 11일 정유에는 태종이 “부왕 때의 죄인이라 하여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문에 황희와 이직을 불러 서울에 돌아오게 하였다”고 하였다.

65) 『세종실록』권23, 6년 3월 26일 임인.

66) 『세종실록』권49, 12년 8월 13일 신사.

학에 뛰어나 교수할만한 능력을 갖추어야했다. 황현이 오랫동안 대사성에 임명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황현만큼 경학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428년(세종 10)에 박서생은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면서 대사성을 맡았다.⁶⁷⁾

한편 1기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성균관에 행직으로 임명받은 일이 더 많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행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성균관의 운영 책임자로서 적합한 사람을 품계가 높은 자에서부터 찾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그들의 스승을 높임으로써 본인들의 위상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조용은 刑曹典書에서 1403년(태종 3) 성균관 생원들의 청에 의해 檢校漢城尹兼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⁶⁸⁾

조용은 예문관대제학을 맡으면서 행정균대사성으로 임명되었다. 조용은 1418년(세종 즉위) 12월에 세종이 百官을 거느리고 성균관에 거동하였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길 왼편에서 맞이하였었다.⁶⁹⁾ 유백순은 仁寧府尹行成均大司成으로 1420년(세종 2) 성균관에서 생원시험을 보였고,⁷⁰⁾ 황현은 대사성을 맡고 있던 도중에 仁壽府尹에 임명되어 행대사성이 되었다.⁷¹⁾

2기 7년 동안 성균관 운영 책임자는 실록에 7명이 기록되어있었다. 금유, 이맹균, 권채, 윤회, 정인지, 유효통, 허조가 있었다. 명 사신이 와서 가대사성에 임시적으로 임명되었던 정인지를 제외하고서도 6명이었다. 이는 성균관 대사성에 통계적으로 약 1년 정도 재직했다는 것으로 1기와 3기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재직기간에 비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 아울러 임명되기 전 관직을 보면 예문관제학, 집현전제학 특히나 1433년(세종 15)부터 집현전에서 근무하였던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학문을 연구하고 문장을

67) 『세종실록』권42, 10년 12월7일 갑신.

68) 『태종실록』권6, 3년 12월 29일 임인.

69) 『세종실록』권2, 즉위년 12월 1일 병자.

70) 『세종실록』권7, 2년 윤1월 13일 임오.

71) 『세종실록』권40, 10년 윤4월 20일 신축; 권43, 11년 2월 3일 기묘

만드는 관청에 있었다는 점이 앞으로 관직에 나아가야 할 유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중요시했고,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황희라는 인물이 1431년(세종 13)부터 1449년(세종 31)에 영의정으로 致仕할 때까지 계속 영의정을 맡았다는 것이다.⁷²⁾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세종이 성균관에도 운영 책임자로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면 계속해서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성균관 운영 책임자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약 1년 정도 재직했고, 이렇게 잦은 인선 교체가 있었던 이유로는 어떤 이를 더 중요한 일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전임자가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맹균은 1432년(세종14) 겸성균대사성을 맡았을 때에 議政府參贊이었다.⁷³⁾ 이맹균은 稱病하며 사직을 주청하였고,⁷⁴⁾ 그러던 중에 1433년(세종 15)에는 평양에 가서 중국 사신을 위로한 일도 있었다.⁷⁵⁾ 세종은 대사성의 직을 그만하고자 하는 이맹균의 뜻을 받아들이고, 윤회를 겸성균대사성에 임명하였다.⁷⁶⁾

藝文提學이었던 정인지는 사신과의 講論과 製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가대사성에 임명되었고,⁷⁷⁾ 유효통은 『通鑑訓義』의 撰集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대사성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集賢殿副提學에 임명된다.⁷⁸⁾ 허조는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예조판서로 임명되었고⁷⁹⁾ 의례정비에

72) 『세종실록』권53, 13년 9월 3일 갑자; 권126, 31년 10월 5일 임자.

73) 『세종실록』권54, 13년 12월 19일 경술에 이맹균을 의정부참찬에 임명하였고, 『세종실록』권55, 14년 3월 4일 계해에 이맹균이 겸대사성직을 사양하였으나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74) 『세종실록』권56, 14년 4월 12일 경자.

75) 『세종실록』권61, 15년 8월 18일 무술.

76) 『세종실록』권61, 15년 윤8월 1일 신해.

77) 『세종실록』권67, 17년 3월 21일 계사.

78) 『세종실록』권68, 17년 6월 8일 무신; 6월 15일 을묘.

79) 『세종실록』권1, 즉위년 10월 16일 임진.

힘썼다. 허조는 1435년(세종 17)에 判中樞院事이자 知成均館事를 맡았다.⁸⁰⁾

15세기는 관찬사업이 대단히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세종 때에는 각종 제도와 예·악을 정비하고 『고려사』를 비롯한 지리지·농서 등 각종 서적의 편찬과 수정 작업이 행해진 시기였다. 또한 15세기는 내내 명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몽골의 동태나 여진족과의 갈등, 일본과의 문제 등에서 중요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여, 외교문서의 작성에도 큰 중요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예문관 대제학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였고, 한 사람이 장기간 대제학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대제학에 오래 재직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대제학을 맡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⁸¹⁾

이렇게 대제학이 오래 재직 못한 이유가 성균관의 대사성이 오래 재직 못했던 것의 이유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관직 이력을 살펴보면 주류가 예문관과 집현전에서 근무했다가 성균관을 거쳐서 다시 중추원, 예문관과 집현전에 재직했기 때문이다. 당시 예문관에 부족한 인력을 성균관에서 채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기는 久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종은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겨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세종연간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했던 점⁸²⁾과 집현전관원이 집현전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⁸³⁾ 세종은 관원에게 중요한 관직들을 장기간 맡아 책

80) 『세종실록』권69, 17년 9월 27일 을미 기사에 허조는 관중추원사로서 영의정 황희와 의논하였고, 지성균관사로서 과거응시자격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81) 오종록, 「조선시대 학자관료집단 연구-조선전기의 대제학을 중심으로」, 『국학연구』제14집, 한국국학진흥원, 2009, 106쪽.

82) 수령의 六期法과 관련한 기록은 『세종실록』권20, 세종 5년 6월 5일 갑인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실록』권 27, 세종 7년 2월 20일 경신에는 “守令은 六期에, 서울 안의 錢穀이 있는 각 官司는 30개월인 것은 이미 법을 이루었다. 先王께서도 뜻이 있었으나 겨를이 없었던 까닭으로, 내가 드디어 선왕의 뜻을 이어 이를 행한 것이다.……비록 六期가 차지 않았더라도 그 재능에 따라 갈아서 쓰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경들도 헤아려 생각해 보라. 나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 수령의 六期法은 세종연간 내내 고치기를 청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임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성균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3기에 성균관 운영 책임 관직을 맡았던 윤상과 김반은 성균관에서 근무하고 승진하며 성균관의 官長이 되기까지 10년 혹은 그 보다 더 오래 있었다. 조정에는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들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로 久任하게 된 이유는 세종이 태종과 세종 때 당면했던 성균관의 운영과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1418년(세종 즉위) 11월 세종이 諭示한 조목 가운데에는,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서울에는 성균관과 五部學堂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勸勉하고 訓誨한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성균관에서 受學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생각건대 教養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인가. 사람들의 趨向이 다른 데 좋아하는 점이 있는 때문인가. 그 振作하는 방법을 정부와 六曹에서 검토 연구하여 아될 것이다……”⁸⁴⁾

라 하여 성균관에 정원이 차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균관은 성균관 유생들의 정원이 차지 않는 문제가 매번 있어왔다. 그 이유로는 서울의 豪勢子弟들이 생원시에 합격하더라도 모두 父兄의 음덕으로 從士하고자하였고, 학문에 뜻을 둔 선비가 있다 하더라도 향상 館에 있기 때문에 風濕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다.⁸⁵⁾ 세종연간에 그에 대한 진흥책이 계속 상소로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는 시기가 바로 이 3기

83) 집현전에 관한 논문으로는 崔承熙, 「集賢殿研究(上)-置廢始末과 機能分析-」, 『역사학보』32, 역사학회, 1966과 崔承熙, 「集賢殿研究(下)-置廢始末과 機能分析-」, 『역사학보』33, 역사학회, 1967 그리고 鄭杜熙, 「集賢殿 學士 研究」, 『전북사학』4, 전북사학회, 1980 논문을 참고.

84) 『세종실록』권2, 즉위년 11월 3일 기유.

85) 『태종실록』권33, 17년 윤5월 14일 기사.

이다.⁸⁶⁾ 성균관 당면 과제의 해결책으로 의정부에서는,

“……師儒의 직임은 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근래의 유생들은 오로지 製述을 숭상하고 경학은 힘쓰지 아니하여 訓誥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師表가 될 만한 자를 얻기란 좀처럼 어렵고, 部學과 지방의 敎官도 인원만 채운 자가 많습니다. 이와 같고도 賢才를 얻기 바라고 풍속을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우니, 원컨대, 諸曹와 臺諫·集賢殿·藝文館·春秋館·成均館은 수령의 개월이 차지 않은 것을 구애하지 말고 衙門에서 마음을 다하여 경학에 밝고 행실이 착하여 사표가 될 만한 자를 찾아내어…….”⁸⁷⁾

라 하여 스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세종은 윤상, 김반과 같이 경학에 뛰어난 이를 성균관에 久任하여 성균관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성균관의 유생들의 상소가 기록에 자주 나온 것 같다. 성균 생원들의 불교 폐단과 관련한 상소,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직임을 돌려주기를 청하는 상소들이 기록에서 보인다.

결국 윤상과 김반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근무하였던 까닭은 그들의 학식이 뛰어나 스승으로 마땅했다는 점이 결국 세종에게 성균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 덕분에 종종 때 儒臣들은 “세종·성종대에 文을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방도를 지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선비가 배출되었다.”⁸⁸⁾며 세종·성종연간에 성균관 교육이 그런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⁸⁹⁾

86) 세종연간에 성균관 진흥을 위한 방안을 올린 상소는 1441년(세종 23) 7월 21일 을묘에 학도의 勸學에 관한 겸성군대사성 권제가 올린 상소와 1442년(세종 24) 8월 4일 신묘에 성균관에서 別試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올린 상소가 마지막인 것으로 보인다.

87) 『세종실록』권84, 21년 2월 2일 신해.

88) 『중종실록』권49, 18년 9월 25일 임진.

IV.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성격

1. 권근과의 네트워크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수와 공통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권근이다. 권근은 조선 초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이색(李穡, 1328~1396)에게서 성리학을 배웠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태종연간의 학문 진흥에 힘썼다.

권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권근의 경학 연구는 증조부인 권보(權溥, 1262~1346)와 권보의 사위인 이제현(李齊賢, 1287~1367) 등으로 이어진 안동 권씨의 가학을 통해 기초가 다져졌다. 그리고 17세 때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 이색⁹⁰⁾·金九容·朴尙衷·鄭夢周·李崇仁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수학하면서 폭넓은 교유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학문을 성장시켜 나갔다. 또 권근은 우왕대에 명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명의 문물을 폭넓게 견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근은 자신의 식견을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저술이 1390년(고려 공양왕 2) 7월 익주 유배시에 지은 『入學圖說』이다.⁹¹⁾ 『입학도설』은 성리학의 기본적인 요점들을 주돈이의 『太極圖說』을 본

89) 申解淳, 「16세기 成均館教育의 沈滯原因에 대한 考察」, 『한국사연구』106, 한국사연구회, 1999, 32쪽~34쪽.

90) 이색은 이제현의 문생으로 고려 사회의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고려후기 주자성리학의 보급은 安珦·權溥·白頤正에서 시작해서 이제현·朴忠佐·李穀·白文寶·李仁復·安軸 등을 거쳐 이색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졌으며, 성리학의 전수를 매개로 하는 사제관계는 실질적인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공민왕 초에 정몽주·박상충·이승인·정도전·김구용·김제안·이존오 등이 “서로 어울려 강론하기를 즐겨했다”고 하는데, 이 모임은 이색과 사제관계로 결속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성균관이 중여했을 때 ‘經術之士’로서 참여하여 성리학을 일으키고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후기에는 성리학의 전수를 통한 사제관계와 과거에서의 좌주·문생관계를 매개로 하여 문신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었다.(이익주, 「고려말 정치상황과 공민왕대 개혁의 추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 현실』15, 한국역사연구회, 1995, 39~43쪽.)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고려말조선초 신진사대부들은 이색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 IV장 1절 권근과의 네트워크는 이색이 가장 큰 범주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쓴 것이다.

떠 그림으로 그려 초학자들이 알기 쉽게 도설로써 풀이한 책이다.

권근은 1391년(고려 공양왕 3) 1월에 유배에서 풀려나 이듬해 1월 개경에 가서 사은하고 다시 충주 양촌으로 내려온 이후 조선에 출사하기 전까지 약 2년간 이곳에 은거하였다. 이 시기에 권근은 그간의 오경 연구 성과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五經淺見錄』이다.⁹²⁾ 오경 중 『시경』·『서경』·『주역』·『춘추』등 4경의 『천견록』은 1393년(태조 2) 2월 조선에 출사하기 전에 완성되었으며, 『예기천견록』은 양촌 은거기에 저술에 착수하여 조선에 출사한 이후인 1406년(태종 6)에 완성되었다.⁹³⁾ 『오경천견록』은 오경을 권근 자신의 견해에 따라 구결과 주석을 달아 해설한 책이다. 태종은 1406년(태종 6) 11월 권근이 『예기천견록』을 올리자⁹⁴⁾, 이를 경연의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 교서관에 간행할 것을 명하였다. 그 결과 『예기천견록』은 1407년에 처음 활자로 간행되었다.⁹⁵⁾ 권근이 저술한 성리학 해설서는 경연에서는 물론이고 성균관과 같은 관학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인 1407(태종 7) 3월에 권근은 儒學提調로서 勸學하는 事目を 상서하였다.⁹⁶⁾ 사목의 내용은 과거 응시 과목에 대한 조목, 삼관의 여러 관원들의 학술 진흥에 대한 조목, 소학의 중요성, 지방 교관과 학생들에 대한 처우, 課詩법의 복행 등이었다. 위와 같은 사목들은 그대로 정책에 수용되었는데 이 사목으로 인하여 과거에서의 講經이 폐지되고 製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유생들의 학문 풍토가 문과합격을 위한 제술능력을 익히는 데에 치중하게 만들었고, 조정에서는 문과 초장의 강경 부활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강경이 부활하였고 강경과

91)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134쪽.

92) 강문식, 위의 책, 134쪽.

93) 강문식, 위의 책, 133쪽.

94) 『태종실록』권12, 6년 11월 17일 계유.

95) 강문식, 위의 책, 139쪽.

96) 『태종실록』권13, 7년 3월 24일 무인.

제술의 법을 둘 다 두어서 모두 힘쓰도록 하였다.⁹⁷⁾

문과 과목의 설정은 앞으로 문과시험을 치를 성균관 생원들에게 학풍을 조장할 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권근의 건의로 비롯된 강경과 제술의 논의는 더 나아가 세종연간에 진사시의 설치⁹⁸⁾와 폐지⁹⁹⁾논의, 단종대 진사시의 재설치¹⁰⁰⁾까지 계속되었다. 이렇듯 권근의 학문적인 성과와 학술 정책은 15세기 관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또한 태조연간에 簽書中樞院事, 藝文春秋館學士를 역임하며 성균관 提調에도 임명되었고, 정종연간에 知經筵事, 政堂文學兼大司憲, 參贊門下府事를, 태종연간에는 지경연사, 參贊議政府事, 知春秋館事,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면서 參贊兼大司成에도 임명되었다. 또 아버지 喪에 있었을 때에는 起復되어 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成均館事世子右賓客으로 임명되었다가 議政府贊成事를 맡았다.¹⁰¹⁾ 아울러 태종연간에는 하윤과 함께 상정도감에 제조로 있으면서 관제개편, 빈첩 제도, 전곡의 출납·회계 등의 제도를 상정하였다.¹⁰²⁾ 이렇게 살펴보면 권근의 관직 경력은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을 맡았던 이들의 관직경력과 유사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선 초기 권근이 맡았던 관직경력이 성균관 고위직 관직들의 본보기였던 것이다.

더구나 권근과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 몇몇은 혈연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가 있다.

97) 『태종실록』권33, 17년 1월 19일 병오.

98) 『세종실록』권68, 17년 6월 26일 병인일에 집현전대제학 이맹균이 진사과의 회복을 아뢰었고, 『세종실록』권80, 20년 2월 7일 신유일에 진사로 신숙주 등 1백명을 뽑았다.

99) 『세종실록』권103, 26년 2월 1일 신사.

100) 『단종실록』권4, 즉위년 12월 26일 갑인.

101) 『태조실록』권6, 3년 9월 8일 을사; 권8, 4년 윤9월 26일 정해; 권13, 7년 4월 20일 병신; 『정종실록』권3, 2년 1월 1일 병인; 권3, 2년 3월 15일 경진; 권5, 2년 7월 2일 을축; 『태종실록』권2, 1년 11월 7일 신묘; 권3, 2년 1월 8일 신묘; 권3, 2년 9월 20일 경자; 권5, 3년 3월 3일 경진; 권11, 6년 4월 28일 무자; 권13, 7년 6월 13일 을미.

102) 『태종실록』권1, 1년 6월 16일; 권3, 2년 1월 8일 신묘; 권3, 2년 1월 16일 기해.

<표 3> 세종연간 성균관 책임 운영자들과 권근의 관계

혈연관계	학연관계	교유했을 것으로 추정됨	관계X
권우, 권채, 권제, 이맹균	허조, 윤희, 김반	유백순, 조용, 조말생	금유, 박서생, 윤상, 탁신, 황현, 유효통, 정인지

가장 눈에 띄는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다. 권우와 권채 그리고 권제는 권근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었다. 권우는 권근의 동생이고, 권채는 권우의 아들이자 권근의 조카다. 그리고 권제는 권근의 아들이다.

그리고 권근은 이색과 학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권근의 첫째 딸은 이색의 아들 李鍾善과 혼인하였다. 권근의 외손인 李季隣·李季甸이 이색의 손자인 이맹균과 사촌지간인 것이다. 권근과 이맹균은 인척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학연관계를 살펴보자면, 권근의 문인인 허조·윤희·김반이 있다. 허조는 어렸을 때 권근에게 학업을 배워 뜻을 가다듬어 학문에 힘썼다.¹⁰³⁾ 권근의 문하였기에 1397년(태조 6)에 成均典簿로서 석전의식에 대해 수정할 것¹⁰⁴⁾을 권근에게 거리낌 없이 요청했던 것 같다.

윤희의 아버지 윤소종(尹紹宗, 1345~1393)은 권근과 같이 이색의 문하로서 고려말 성균관에서 교유하였는데, 그 아들인 윤희는 권근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윤희는 권근이 죽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을 썼는데, 그 내용에 스승으로 모시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⁰⁵⁾

김반은 권근이 『예기천견록』을 쓸 때에 도움을 주었고, 1405년(태종 5)에 권근은 상서하여 김반과 김종리(金從理, ?~?)를 천거하였다. 이때 김반은 成

103) 『동문선』 권130,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春秋館事 世子傳贈 諡文敬許公墓誌銘」

104) 『세종실록』 권87, 21년 12월 28일 임인.

105) 『동문선』 권110, 「陽村先生權文忠公近祭文」

均注簿에 임명되었다.¹⁰⁶⁾ 또 1433년(세종 15)에는 김반이 상언하여 스승인 권근을 이색·이제현과 함께 문묘 종사의 반열에 올리기를 청한 일이 있었다.¹⁰⁷⁾

다음으로 유백순, 조용, 조말생은 권근과 직접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교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유백순은 그의 아버지인 유방택(柳方澤, 1320~1402)이 권근과 함께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고, 또 형인 유백유(柳伯濡, 1341~?)과 함께 이색 밑에서 공부하였다. 이색의 밑에서 공부했다는 점은 권근과의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형 유백유는 이색의 손주사위였으므로, 이색을 중심으로 멀게나마 권근과 인맥이 닿았다고 볼 수 있다. 조용은 정몽주의 문인이었고, 태종 때에 권근과 함께 세자빈객을 맡은 적이 있었다.¹⁰⁸⁾ 조용의 문인인 조말생은 권근과 시를 지으며 교유한 일도 있었고,¹⁰⁹⁾ 권근과 조말생은 태종과 각각 사돈을 맺으면서 태종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맺었다.

한편 권근 계열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유는 조준의 문생이었고, 박서생은 길재의 문인, 정인지는 권우의 문인 그리고 윤상은 조용의 문인이었다. 그 외에 탁신, 황현, 유효통은 누구에게서 수학하였고, 어떠한 교유관계가 있었는지 기록에 나오는 바가 없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근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17명 중 10명으로 반이 넘는다. 이는 권근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다. III장에서 보았듯이 세종연간은 세종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도

106) 『태종실록』권10, 5년 10월 17일 기묘.

107) 『세종실록』권59, 15년 2월 9일 계사.

108) 『태종실록』권10, 5년 10월 21일 계미.

109) 『敬齋集』권4, 「附錄」, “…如國老鄭郊隱以吾首爲絕句以倡 權陽村近 崔提學興孝 趙判院末生 辛參判引孫繼而和之 尹清香淮序以記之…”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다수가 권근과 인적 관계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선발에 있어서 권근과의 관계가 중요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들이 성균관에 재직할 수 있는 사회적·지식적 배경을 만들어 준 것은 권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성균관에 재직하면서 다시 후학을 길러내며 권근과의 연결을 재생산하였다. 이 때문에 성균 생원 金日孜가 권근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는 기록이 나타나고,¹¹⁰⁾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別洞集』서문에서 윤상을 찬양함에 “...당시의 높은 관리와 유명한 사람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으니, 스승으로서의 존엄함이 양촌(권근) 이후의 한 사람뿐이었다...”¹¹¹⁾라고 하여 성균관에 많은 선생이 있었어도 윤상 이전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권근뿐이었다는 기록이 나타났다고 본다.

이 절에서는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 중 다수가 권근과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여, 권근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권근의 학술적인 능력과 학술 진흥 정책은 조선 관학의 교육 제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다수가 권근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세종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을 임용할 때에 권근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성균관 이외의 관직 경력

지금까지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 직책을 통해 성균관의 운영이 시

110) 『세종실록』 권72, 18년 5월 12일 정축.

111) 『別洞集』序, 「別洞先生集序」

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짚어보고, 다음으로 그 성균관 운영 책임 직책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공통적인 인적 관계망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균관 이외에 어떤 다른 주요한 직책들을 주로 맡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말했듯이 1421년(세종 3)까지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세종이 즉위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조용은 藝文館大提學 行成均館大司成을 맡은 이후 檢校議政府贊成에 제수되었고, 判右軍都摠制府事로 致仕하였으며 1424년(세종 6)에 사망하였다.¹¹²⁾ 권우는 관직 그대로인 藝文提學으로 사망하였고,¹¹³⁾ 유백순도 行大司成으로 사망하였다.¹¹⁴⁾ 탁신은 兼成均司成을 맡은 다음해인 1422년(세종 4)에 議政府參贊에 임명되었고, 1426년(세종 8)에 의정부참찬으로 사망하였다.¹¹⁵⁾

그 다음 성균관 운영 책임자였던 황현은 行成均大司成을 맡은 이후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박서생은 대사성으로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온 이후 集賢殿副提學, 工曹參議, 兵曹參議, 判安東大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¹¹⁶⁾ 이를 끝으로 더 이상 박서생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금유는 1432년(세종 14)에 左司諫을 삼았다는 기록으로 다시 나온다. 그리고 右司諫, 刑曹右參議를 역임하였고 1441년(세종 23)에 僉知中樞院事에 제수되었다. 계속해서 兼知兵曹事, 全羅道觀察使, 工曹參議를 역임하였다.¹¹⁷⁾

이맹균은 議政府參贊 兼成均大司成을 맡은 후 1434년(세종 16)에는 判漢

112) 『세종실록』권13, 3년 8월 18일 무신; 권24, 6년 6월 28일 신미.

113) 『세종실록』권3, 1년 3월 14일 무오.

114) 『세종실록』권7, 2년 3월 16일 갑신.

115) 『세종실록』권17, 4년 9월 25일 기묘; 권31, 8년 1월 18일 계축.

116) 『세종실록』권47, 12년 1월 8일 기유; 권49, 12년 9월 17일 을묘; 권53, 13년 7월 25일 정해; 권57, 14년 7월 2일 무오.

117) 『세종실록』권56, 14년 4월 18일 병오; 권56, 14년 4월 22일 경술; 권58, 14년 12월 8일 계사; 권92, 23년 2월 3일 경오; 권93, 23년 6월 13일 무인; 권93, 23년 7월 8일 임인; 권97, 24년 7월 3일 신유.

城府事, 1435년(세종 17)에는 吏曹判書와 集賢殿大提學을, 1436년(세종 18)에는 知中樞院事, 藝文館大提學을 역임했다. 1437년(세종 19)에 藝文館大提學兼判吏曹事로 제수되었다가 右贊成에 올랐으며 判吏曹事는 계속 겸하였다. 1439년(세종 21)에 左贊成을 역임했다. 1440년(세종 22)에 귀양갔다가 돌아 오던 길에 사망하였으니 나이 70세였다.¹¹⁸⁾

이맹균의 줄기를 보면, “…諡號를 文惠라 하였으니, 학문에 부지런하여 문기를 좋아함이 文고, 부드러운 자질로써 백성을 자애함이 惠이다. 禮로써 장사하였는데 왕세자도 또한 弔問하고 부의를 내렸다. 맹균은 성품이 溫良하고 일찍부터 가업을 이어서 詩文이 典雅하였다. 자식은 없었다.”¹¹⁹⁾ 라 한다. 이맹균이 의정부좌찬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품이 온량하고 부드러운 자질과 함께 학문에 부지런하며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권채는 집현전에서 근무하다가 성균대사성을 맡은 이후에 1435년(세종 17)에 同副承旨, 1436년(세종 18)에 右副承旨, 1437년(세종 19)에 左副承旨, 1438년(세종 20) 3월에 右承旨로 승진하였다.¹²⁰⁾ 그러나 두 달 뒤에 사망하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났었고 장성함에 이르러 詩文을 다 잘하여 권채와 文衡을 맡았는데, 나이 겨우 40에 죽어 사람들이 경악 탄식하였다.¹²¹⁾ 권채는 문장이 뛰어났기에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윤회는 겸성균대사성이 되기 전부터 관직의 경력을 보면, 집현전과 예문관에서 주로 관직생활을 하였다. 1433년(세종 15) 3월에 예문제학으로 있으면서 어머니 喪에 있었는데 文衡을 맡게 하였고, 6월에 中樞院使, 윤 8월 中

118) 『세종실록』권66, 16년 12월 17일 경신; 권67, 17년 3월 27일 기해; 권68, 17년 6월 26일 병인; 권72, 18년 4월 9일 을사; 권74, 18년 9월 24일 병진; 권78, 19년 8월 17일 갑술; 권79, 19년 10월 24일 경진; 권85, 21년 6월 12일 무자; 권90, 22년 8월 30일 기해.

119) 『세종실록』권90, 22년 8월 30일 기해.

120) 『세종실록』권67, 17년 3월 8일 경진; 권75, 18년 12월 3일 갑자; 권78, 19년 8월 27일 갑신; 권80, 20년 3월 18일 임인.

121) 『세종실록』권81, 20년 5월 10일 계사.

樞院使兼成均大司成에 임명되었다. 1434년(세종 16년)에 예문관대제학에 제수되었다. 1436년(세종 18)에 57세로 사망하였다.¹²²⁾ 태종은 일찍이 윤희에게 “경은 학문이 고금을 통달했으므로 세상에 드문 재주이고, 용렬한 무리의 비교가 아니니, 경은 힘쓰라.”¹²³⁾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매우 학식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에 이맹균이 사직했을 때 바로 성균관의 운영 책임을 맡을 사람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정인지는 예문관제학으로 가대사성을 맡았던 같은 해 6월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 해인 1436년(세종 18) 아버지 喪을 당해 사직하였다. 이후 1438년(세종 20) 刑曹參判을 맡았고, 1439년(세종 21) 형조참판에 집현전제학을 겸하고 있었다가 예문관제학이 되고 다음해에 다시 형조참판에서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謝恩使가 되어 북경에 간 동안 知中樞院事에 제수되었다. 1444년(세종 26)에 예문관대제학을, 1445년(세종 27)에 우참찬을, 1446년(세종 28)에 예조판서를, 1447년(세종 29)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448년(세종 30)에는 正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兼成均大司成으로 『태조실록』을 증보 편수하였다. 1450년(세종 32)에는 중국 사신이 와서 館伴이 되었다. 정인지는 1478년(성종 9)에 사망하였는데 83세였다.¹²⁴⁾

유효통 또한 대사성을 맡았다가 바로 集賢殿副提學에 임명되었다. 1439년(세종 21) 12월에 慶州府尹으로 임명되었다. 1444년(세종 26)에 兵曹參議, 同知中樞院事, 中樞院副使, 藝文館提學을 역임하였다.¹²⁵⁾

122) 『세종실록』권59, 15년 3월 2일 을묘; 권61, 15년 윤8월 1일 신해; 권64, 16년 6월 28일 계유; 권71, 18년 3월 12일 무인.

123) 『세종실록』권71, 18년 3월 12일 무인.

124) 『태조실록』권15, 증보 편수관 명단; 『세종실록』권68, 17년 6월 29일 기사; 권74, 18년 9월 27일 기미; 권83, 20년 12월 3일 계축; 권85, 21년 5월 7일 갑인; 권86, 21년 9월 6일 신해; 권89, 22년 4월 2일 계유; 권89, 22년 5월 3일 갑진; 권91, 22년 10월 16일 을유; 권91, 22년 11월 12일 신해; 권105, 26년 7월 1일 무신; 권107, 27년 1월 24일 무술; 권112, 28년 4월 25일 임술; 권116, 29년 6월 10일 신미; 권127, 32년 윤1월 1일 병오; 『성종실록』권98, 9년 11월 26일 계미.

125) 『세종실록』권68, 17년 6월 15일 을묘; 권87, 21년 12월 8일 임오; 권103, 26년 2월 7일 정해; 권105, 26년 7월 1일 무신; 권105, 26년 7월 29일 병자; 권106, 26년 10월 6일 신해.

허조는 성균관 운영 책임 직책을 맡기 전 관력이 대단했다. 1421년(세종 3)에 參贊議政府事을 역임했고, 1422년(세종 4)에 吏曹判書에 제수되었다. 1428년(세종 10)에 判中軍府事, 1430년(세종 12)에 議政府贊成, 상정소의 제조를 맡았고, 1432년(세종 14)에 다시 吏曹判書를 맡았다. 1433년(세종 15)에 判中樞院事를 맡았고, 1435년(세종 17)에 판중추원사로서 判禮曹事를 겸하였다가 知成均館事를 맡았다. 지성균관사를 맡고난 다음에는 1438년(세종 20)에 議政府右議政에 승진되었고, 1439년(세종 21) 6월에 左議政으로 승진했으나 병에 걸려 좌의정 그대로 致仕하였고 12월에 사망했다.¹²⁶⁾

다음으로 권제는 兼成均館大司成을 하고 난 뒤 1443년(세종 25) 議政府左參贊兼判吏曹事에 임명되고, 1445년(세종 27)에 右贊成으로 승진되었고 『龍飛御天歌』를 지어 바치고서 곧 사망하였다. 나이가 59세였다.¹²⁷⁾ 권제는 “총명하고 학문이 넓으며, 말을 잘하고 時事를 말하기를 좋아하였다”¹²⁸⁾는 평을 받았다. 권제가 다른 이들보다 관력에 두드러지는 점이 있다. 바로 명에 사신으로 갔던 점이다. 1429년(세종 11)에 進獻使로 북경에 다녀왔고, 1438년(세종 20)에는 計稟使 惠寧君 李祉의 副使로 북경에 가서 勅書를 받들고 돌아왔다.¹²⁹⁾ 당시 조선에서는 명과의 세폐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에서 필요한 능력이 외교문서를 잘 쓰는 능력이었다. 권근의 아들이자 문장을 잘 쓰는 특기로 권제는 문형을 오래 맡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으로 사신을 보낼 때에도 함께 갔던 것으로 보인다.

윤상은 성균관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윤상이 成均司成을 겸했을 때 주로 藝文提學의 직을 맡고 있었다. 윤상은 이후 예문제학으로 파직되었고 1455

126) 『세종실록』권12 3년 7월 4일 갑자; 권17, 4년 9월 25일 기묘; 권40, 10년 4월 24일 병자; 권47, 12년 1월 8일 기유; 권57, 14년 8월 2일 무자; 권62, 15년 11월 13일 임진; 권69, 17년 9월 27일 을미; 권81, 20년 5월 19일 임인; 권85, 21년 6월 12일 무자; 권87, 21년 12월 1일 을해; 권87, 21년 12월 28일 임인.

127) 『세종실록』권100, 25년 6월 12일 을미; 권107, 27년 1월 24일 무술; 권108, 27년 4월 5일 무신; 권108, 27년 4월 16일 기미.

128) 『세종실록』권108, 27년 4월 16일 기미.

129) 『세종실록』권45, 11년 7월 19일 계해; 권81, 20년 5월 25일 무신.

년(단종 3)에 예천에서 사망하였다.¹³⁰⁾ 김반 또한 성균관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김반은 행정균대사성에서 노병으로 파직되고 만다.¹³¹⁾

조말생도 허조처럼 知成均館事를 맡았는데, 지성균관사를 맡았을 때 관중추원사로 75세였다. 조말생은 이후 1446년(세종 28)에는 領中樞院事가 되었고, 1447년(세종 29)에 영중추원사로 사망하였다. 나이가 78세였다.¹³²⁾ 조말생은 태종이 아끼는 신하였기에 태종 때에 지신사, 병조판서를 역임했었다. 세종연간에도 병조판서를 맡았지만 贓罪로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가 주로 중추원 관직을 맡으며 대제학을 지냈었다.¹³³⁾

여기까지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이 맡았던 관직들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성균관 운영 책임을 맡은 인물들은 경연관, 집현전, 춘추관, 예문관과 같이 학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관서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고위 관직자로서 성균관을 겸직할 때에는 예문관대제학과 같은 문형이 주류였다. 그러나 그 이전 또는 이후 관직을 좀 더 살펴보면 의정부, 육조, 승정원과 같이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관서에 임명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관직자 개인이, 어떤 이는 행정에, 어떤 이는 외교에, 어떤 이는 경학에 뛰어나 자질에 마땅한 관직으로 임명되어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곧 이들이 학술적인 성향에 치우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정적인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학술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관서에도 주요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연간은 아직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관직의 변동 가능성이 아직은 큰 시기였다. 유학의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성균

130) 『문종실록』권2, 즉위년 7월 8일 경술; 『단종실록』권13, 3년 3월 9일 갑인.

131) 『세종실록』권123, 31년 2월 16일 정묘.

132) 『세종실록』권104, 26년 5월 9일 무오; 권111, 28년 1월 24일 임진; 권116, 29년 4월 27일 무오.

133) 『세종실록』권116, 29년 4월 27일 무오.

관은 고려 말에서부터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다음에 어떤 관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국왕인 세종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성격에 대해 교육적인 면모를 강조해왔다. 사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관력을 살펴보면 학술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에도 주요 관직에 임명되었고 혹은 성균관대사성과 겹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관력을 살펴보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이 단순히 교육 기구의 長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종연간의 성균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성균관 운영 책임자였던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격을 밝히면서 세종연간의 성균관과 그 운영 책임자들에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조선 초 성균관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405년(태종 5) 10월 태종이 한성으로 환도하고 나서부터 한성의 성균관이 조선의 성균관이 되었다. 태종은 성균관을 정비하였다. 1407년(태종 7)에 성균관 문묘가 완공되었고, 성균관 시설의 증축은 계속되었다. 세종연간에는 성균관에 온돌을 더 놓고, 鋪陳도 깔게 하는 등 성균 유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하여 힘썼다. 한편 건물이 조성되는 과정과는 별개로 성균관의 직제도 개편되었다. 세종연간의 성균관 직제 개편은 四學과 宗學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敎官을 성균관의 敎官으로 하여금 겸임시키며 초래된 敎官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었다.

조선 초기 성균관에는 다른 관직을 맡은 이가 겸직으로 성균관의 관원이 되는 兼官制가 있었다. 이 겸관제를 통해 성균관에는 정3품 대사성보다 더 높은 관직이 있었다. 세종연간에도 종2품 이상의 당상관들로 하여금 성균관에 겸관으로 임명하여 근무평가와 강학을 담당하게 하였고, 필요한 논의들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균관에서 정3품 이상의 관직을 맡았던 자들을 모두 성균관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세종연간에 어떤 인물이 성균관 운영 책임 직책을 맡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성균관 운영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해보았다. 시기는 총 3시기로 나뉜다. 대략 1418년(세종 즉위)부터 1430년(세종 12년)까지를 1기, 1431년(세종 13)부터 1437년(세종 19)까지를 2기, 1441년(세종 23)부터 1450년(세종 32)까지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 중에서도 1418년(세종 즉위)부터 1421년(세종 3)까지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태종연간에 성균관대사성을 맡았던 적이 있던 이들이 맡았다. 이 시기는 세종이 새로 발탁한 인물들이 아닌, 이미 태종이 발탁한 인물들 가운데서 세종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로 선택하여 임명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사성에 임명되려면 경학에 뛰어나 교수할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1기에 황현이 오랫동안 대사성에 임명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황현만큼 경학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기에 성균관 운영 책임자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약 1년 정도 재직했고, 이렇게 잦은 인선 교체가 있었던 이유로는 어떤 이를 더 중요한 일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관직 이력을 살펴보면 주류가 예문관과 집현전에서 근무했다가 성균관을 거쳐서 다시 중추원, 예문관과 집현전에 재직하였다. 이는 당시 사정 속에서 예문관에 부족한 인력을 성균관에서 채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3기에 성균관 운영 책임 관직을 맡았던 윤상과 김반은 성균관에서 근무하고 승진하며 성균관의 官長이 되기까지 10년 혹은 그 보다 더 오래 있었다. 조정에는 그들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들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로 久任하게 된 이유는 세종이 태종과 세종때 당면했던 성균관의 운영과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은 경학에 뛰어난 이를 성균관에 久任하여 성균관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IV장에서는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세종연간의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권근이라는 공통적인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 가운데 권근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17명 중 10명이었다. III장에서 보았듯이 세종연간은 세종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성균관 운영 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다수가 권근과 인적 관계를 형성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은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선발에 있어서 권근과의 관계가 중요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들이 성균관에 재직할 수 있는 사회적·지식적 배경을 만들어 준 것은 권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연간에 권근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한편, 여러 연구자가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의 교육적인 면모를 강조해왔으나, 이 점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종연간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이 맡았던 관직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성균관 운영 책임을 맡은 인물들은 경연관·집현전·춘추관·예문관과 같이 학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관청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의정부·육조·승정원과 같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기관의 관직도 역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학술적인 성향에 치우친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정적인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들은 성균관 운영을 담당한 이후 학술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의 주요 관직에도 두루 임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세종연간 성균관에서는 국왕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정 속에서 권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룬 이들이 성균관 운영 책임자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균관 운영 책임자들은 학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 능력 역시 갖춘 인물들이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직에도 임명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로부터 성균관 자체가 단순한 교육기구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I. 사료

『高麗史』,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中宗實錄』, 『經國大典』 『敬齋集』, 『東文選』, 『別洞集』, 『新增東國輿地勝覽』, 『五經淺見錄』, 『增補文獻備考』, 『太學志』

II. 연구저서

-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權五興, 『儒敎와 釋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 김기승, 『고불 맹사성의 생애와 사상』, 고불맹사성기념사업회, 2014.
- 金松姬, 『朝鮮初期 堂上官 兼職制 研究』,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 都賢喆,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一潮閣, 1999.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1983.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성균관과 문묘의 세계유산적 가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6.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문화사대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_____, 『세종문화사대계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申千湜, 『高麗敎育制度史研究』, 영운출판사, 1993.
- _____, 『麗末鮮初 性理學의 受容과 學脈』, 景仁文化社, 2004.
-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 集文堂, 1994.
- 鄭杜熙,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 1983.
- 崔承熙,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2002.

한국역사연구회 14세기 고려사회 성격 연구반,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종시대의 문화』, 태학사, 2001.

Ⅲ. 연구논문

강문식, 「權近의 生涯와 交遊人物」, 『韓國學報』27, 일지사, 2001.

金鎔坤, 「朝鮮前期 道學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博士學位論文, 1994.

金泳斗, 「朝鮮 前期 道統論의 展開와 文廟從祀」, 西江대학교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06.

南智大, 「朝鮮初期 官署·官職體系의 정비」, 『湖西文化論叢』9·10, 西原대학교 湖西文化研究所, 1996.

도현철, 「권근」, 『한국사 시민강좌』39, 일조각, 2006.

徐信錫, 「15世紀 成均館의 機能研究」, 『韓國學論集』2,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申奭鎬, 「李朝初期의 成均館의 整備와 그 實態」, 『大東文化研究』6·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69.

申千湜, 「朝鮮初期 成均館운영과 敎育改革에 관한 研究」, 『關東史學』3, 관동사학회, 1988.

_____, 「朝鮮前期 成均館의 시설과 敎育機關에 대한 검토」, 『명지사론』8, 명지사학회, 1997.

신향수, 「성균관 유생들의 성리학적 이상과 현실참여」, 『내일을 여는 역사』25,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申解淳, 「16세기 成均館敎育의 沈滯原因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106, 한국사연구회, 1999.

- _____, 「中宗~明宗朝의 館學教育振興策」, 『사학연구』58·59, 한국사학회, 1999.
- 박중배, 「조선시대 成均館 大射禮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13, 교육사학회, 2003.
- 오종록, 「朝鮮時期的 官僚制度 및 그 운영의 특성-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과 관련하여-」, 『韓國史研究』130, 韓國史硏究會, 2005.
- _____, 「조선시대 학자관료집단 연구-조선전기의 대제학을 중심으로」, 『국학연구』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 劉載梨, 「世宗의 王權確立過政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8.
- 李成茂, 「鮮初의 成均館研究」, 『역사학보』35·36, 역사학회, 1967.
- _____, 「朝鮮의 成均館과 書院」, 『한국사 시민강좌』19, 일조각, 1996.
- 이욱,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儒敎思想研究』16, 한국유교학회, 2002.
- 李廷柱, 「麗末鮮初 儒學者의 佛敎觀 -鄭道傳과 權近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 李羲權, 「朝鮮前期의 空館研究」, 『사학연구』28, 한국사학회, 1978.
- 張在天, 「朝鮮前期 成均館 敎育과 儒生文化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 _____, 「朝鮮期 成均館 釋奠祭禮의 社會敎化的 性格」, 『韓國思想과 文化』13, 修德文化社, 2001.
- _____, 「대사성까지 역임한 성균관의 우수 교관 사례」, 『韓國思想과 文化』77, 수덕문화사, 2015.
- 全淳東, 「明代 學校敎育의 普及과 政治·社會的 機能 -明初 洪武·永樂期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69, 중국사학회, 2010.

- 丁洛贊, 「朝鮮前期 成均館大司成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_____, 「조선전기 성균관 대사성 역임자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분석」, 『한국교육사학』23, 한국교육사학회, 2001.
- 정덕희, 「조선시대 성균관대사성의 전력(前歷) 분석」, 『한국교육사학』29, 한국교육사학회, 2007.
- 정덕희, 「조선시대 성균관대사성의 출신배경 실태」, 『조선시대사학보』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 鄭杜熙, 「集賢殿 學士 研究」, 『全北史學』4, 전북사학회, 1980.
- 池斗煥, 「朝鮮前期 文廟從祀 論議-鄭夢周·權近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9, 효원사학회, 1985.
- _____, 「朝鮮前期 文廟儀禮의 整備過程」, 『한국사연구』75, 한국사연구회, 1991.
- 채웅석, 「고려 말 권근(權近)의 유배(流配)·종편(從便) 생활과 교유」, 『역사와 현실』84, 한국역사연구회, 2012.
- 崔承熙, 「集賢殿研究(上)」, 『역사학보』32, 역사학회, 1966.
- _____, 「集賢殿研究(下)」, 『역사학보』33, 역사학회, 1967.
- 崔孝軾, 「陽村 權近의 조선왕조 立朝와 그 功過」, 『경주사학』24·25, 경주사학회, 2006.
- 皮貞晩, 「朝鮮時代 成均館大司成考」, 『教育史教育哲學』장간호, 한국교육철학회, 1977.
- 皮貞晩, 「朝鮮時代 成均館의 教育制度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ABSTRACT

Sungkyunkwan in Sejong Era

Park Eun Im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Sungkyunkwan(成均館) was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of teaching students of Confucian who were preparing a liberal arts and an academic institution which studied on Neo-Confucianism. According to Sejong Era, high state councilors of over Jong-2-pum were appointed to Sungkyunkwan and they wer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Sungkyunkwan.

Looking at Sejong Era to find out who were appointed to what positions and were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ungkyunkwan's operation could be divided into 3 periods. In the first period(1418~1430), Sejong chose and appointed officials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among Taejong had selected. In the second period(1431~1437), the service period of officials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was shorter than other periods. It is judged that Sejong filled up officials from Sungkyunkwan for the human power shortage. In the third period(1441~1450), it is appeared that

Sejong reappointed officials in charge of Sungkyunkwan to solve the operational tasks.

Looking at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in Sejong Era, it found that many of them were connected to Gwongun. In the early Choseon Dynasty, Gwongun's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policy of promoting academ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national education of Choseon. The point that many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had personal relations with Gwongun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relationship with him would be important in selecting officials for Sungkyunkwan.

On the other hand, it emphasized the educational asp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s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In fact,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y worked at institutions which required academic abilities like Jiphyeonjeon or Yemunwan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Uijeongbu, Yukjo, and Seongjungwon. It means that they were equipp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bilities rather than leaning on the academic tendency. As the result, it is judged that they could be appointed to academic institutions as well as other positions which required administrative abilities.

In short,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officials who had human relations with Gwongun were the mainstream in the operation of Sungkyunkwan in the situation that the king exercised the strong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at Sungkyunkwan in Sejong Era. On the other hand,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had an

academic as well 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bilities and that is why that they were appointed to a variety of positions. Eventually, according to the above fact, it is had to say that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Sungkyunkwan's operation were simply the head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